

여러분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어떤 기적을 바라고 계신가요?
 신앙인인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아기 예수님을 보내 주시는 사랑의 기적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다려야 할 거예요.
 이번 특집은 성탄의 신비를 묵상하며
 우리 일상에서 소소한 기적들을
 만들어 가길 바라며 준비했어요.

첫 번째로, **'사랑의 기적'**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사랑 이야기를 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기적'**에서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 낸 멋진 화음,
 아카펠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눔의 기적'**에서는
 간단한 성탄 데코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 소외된 이웃과 나눠 봐요.

특집

크리스마스의 기적 만들기

사랑의 기적	강일선
믿음의 기적	한승모
나눔의 기적	김혜숙

사랑의 기적

-아기 예수여, 어서 오소서!

강일선

기적은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신(神)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을 가리킨다. '세상에 기적이 정말 존재할까?' 하는 물음은 모두 한 번쯤 가져 보았을 것이다. 또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 할 만한 기이한 현상도 다들 한 번쯤 겪어 봤을 것이다. 물론 세상 모든 일들을 과학적으로 요목 조목 설명할 수 있다는 요즘이지만, 실상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기적을 바라며 살고 있는 듯싶다. 아직도 과학적으로 풀어 내지 못한 신비가 무궁무진하기에 그렇고, 현실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팍팍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자기가 바라는 기적이라는 것이 로또 1등 당첨과 같은 물질주의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설혹 그러한 기적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어떨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희박하다는 조사 결과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수록 궁핍해지는 이유를 알 것이다. 바로 진정한 자신의 욕구, 영혼의 목마름을 잊고 살기 때문이 아닐지.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의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한다. 처녀인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이야기지만, 모든 이에게는 희망이 되고, 구원이 될 기쁜 소식이다. 바로 하느님의 외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이라는, 그것도 처녀의 몸을 띠어 오실 것이라는 것이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한 기적이 있을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기적이라 할 수 없는 각종 일들을 기적이라고 떠들어댄다. 한때 황우석 박사의 이야기가 그러했고, 확률이 몇 억 분의 일이라는 로또 1등 당첨 소식에 대한 것도 그러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



정 기쁜 소식이 되어 왔는지는 돌아볼 일이다.

그렇다면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의 일상에 진정으로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집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전해 듣고 힘들어한다. 다른 사람의 소식을 듣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이 내 자신과 관련한 일이었을 때는 오늘 하루 살기가 정말 힘에 부친다. 그런데, 삶은 원래 고독한 것이란다. 인간은 홀로 와서 홀로 간다. 부지불식간에 외로움이 물밀듯이 밀려온다. 그런데, 그때 하느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루카 1, 28). 이는 실로 우리에게도 찾아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샘솟게 하는 격려의 말씀이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 걱정 말아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다른 성경 속 인물들도 이와 같은 말씀에서 용기와 힘을 얻었다. 한 예로 모세가 광야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탈출 3, 2), 자신의 소명에 두려워하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탈출 3, 12) 하신 말씀에서도 알 수 있다.

아마도 하느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일 것이며, 우리에게 더없는 기쁜 소식이 아닐는지. 더군다나 그 하느님께서 단순히 말로만 함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곁으로 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아닐는지.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강요하지 않으셨다. 다만, 마리아에게 따를 수 있을 만한 용기와 힘을 주셨다. 어쨌든 선택은 온전히 마리아의 몫이다. 그리고 결국 마리아는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

우리의 무거운 여러 가지 짐들을 내려놓고,
 이웃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줌 더 흥가분한,
 그러나 풍성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가볍고도 진한, 기적같이 찾아오는 행복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를 바랍니다.”(루카 1, 38)라고 응답하였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을 믿는 것도 온전히 우리의 몫이다.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하거나 억박지르시지 않는다. 그저, 아기 예수님께서는 올해도 초라한 곳에서 다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귀뜸해 주신다. 그 믿을 수 없는 진실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바로 우리 옆에 오실 거라는데,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실 거라는데 이보다 확실히 다가오는 말씀이 있을까. 하느님께서는 웬지 손 닿지 않는 먼 곳에 계신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진 것이다. 기적은 먼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너무도 분명해진다. 그분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하신 후 어떻게 생활했을까? 물론 여느 어머니들과 다름없었겠지만, 아마도 웬만한 어머니들보다도 더욱 몸가짐, 마음가짐을 조심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해야 할까?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더욱 바르게 하며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

자신을 방문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한 이 말(루카 1, 45) 역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 듯싶다. 예수님께서, 귀한 하느님의 아드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리라 믿는 사람은 진정 행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 행복을 찾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극적인 치유나 일확천금 같은 기적을 바라는 이유도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다. 기적의 다른 이름은 ‘행복’ 인 것이다. 그래서 무엇에 의미를 부여할 때, ‘이것을 함으로써 행복한가?’ 혹은 ‘이것을 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보고는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를 함으로써 행복한가?’, ‘동료 교사를 만나고, 아이들을 가르침으로써 행복한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느님을 만남으로써 행복한가?’ 이러한 질문에 ‘행복하다.’ 라고 답할 수 없다면, 왜 그럴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교사로서의 소명

이 바로 주님께서 진정 나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믿을 필요가 있다. 마리아가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였듯이 그리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쌓아온 나의 아집과 이기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흥가분해졌을 때야 우리는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마태 11, 30)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의 무거운 여러 가지 짐들을 내려놓고, 이웃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줌 더 흥가분한, 그러나 풍성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가볍고도 진한, 기적같이 찾아오는 행복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모 개그 프로그램에 보면 ‘희망, 소망, 절망’ 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희망’ 과 ‘소망’ 이가 그야말로 ‘희망’ 하고 ‘소망’ 하는 일들을 얘기하면 ‘절망’ 이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남을 알려 주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전에는 또 하나의 절망이라는 단어가 존재한다.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 버림 또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절망(絶望)이 아니라, 간절히 바람을 뜻하는 절망(切望)이다. 우리가 ‘기적은 없다.’ 고, 그리하여 ‘절망’ (絶望)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적을 ‘절망’ (切望)하고 있다는 역설로 들리는 것은 왜일까. 다시 하느님의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한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깊고 뜨거운 구애 소식을 전한다. 그 소식에 귀 기울였을 때, 그리고 믿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 함께하고, 사랑 받고 있음을 느낄 때 어느 때보다 행복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 사랑의 기적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그 엄청난 신비가 올해도 어김없이 이루어지려 하고 있다. ✎

강일선 베로니카
 자유기교가